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 11. 26.(목)

과기정통부, 2026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 사기 전화범의 음성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탐지 서비스로 국민 안전 보호 –

– 관계부처·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기술과 제도의 벽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 안전 실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11월 25일(수) 열린 「2026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온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을 울린 그놈 목소리(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다」 과제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 과제는 진화하는 사기전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일상적인 통화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카드배송, 사건조회, 대출 신청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사칭하는 신종 사기전화 수법이 등장하면서 기존 문자(텍스트) 기반의 탐지 모델만으로는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동일한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범인의 고유한 음성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개인의 음성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사기 전화범의 동의 없이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 규제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제 기획 초기부터 협업하여 사기 전화 범의 음성 정보를 탐지 모델 개발 및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KT · SKT · LG유플러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적극 설득하여 실증 특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통화 문맥 분석과 음성 인식이 결합된 인공지능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 출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 단말기에서도 음성 기반 실시간 탐지 기능을 기본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확산과 현장 적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범정부 사기전화 근절대책과 연계한 인공지능 탐지 서비스는 2026년 9월 기준 위험 목소리 알림이 누적 5,782건을 기록하는 등 국민이 사기전화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와 민간기업이 기술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장	공 석
		담당자	사무관	박은우 (044-202-4448)
협조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책임자	과장	남영준 (044-202-6140)
		담당자	사무관	남승진 (044-202-6113)